

할빈시 조선족 여성들, 패션쇼로 ‘진달래’ 활짝

할빈시 조선족 여성들로 주축이 되어있는 ‘궁중모델 패션쇼’ 공연팀이 일전 흑룡강성 TV 방송국 음력설야회에 출연하여 화려함과 도고함, 아름다움으로 할빈 관중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 패션쇼의 종목 <활짝 핀 진달래>는 전 흑룡강성 100 여개 종목 가운데서 몇차례의 예선을 거쳐 최종 입선된 26 개 종목 가운데의 하나였다. 흥겨운 노래가락에 맞추어 화려한 복장차림의 모델들이 하나둘씩 혹은 짝을 무어 서서히 무대에 등장, 전문 모델 못지 않은 품위와 동작으로 무대를 주름잡으며 화려한 공연을 펼쳤다. 우아한 궁중 복식, 중국 특색과 동북 특색이 결합된 화려한 복식, 할빈시 조선족 여성들의 멋스러움과 도고한 품위를 보여주는 스타일의 복식 등이 련이어 등장했다. 오색단장 화려한 30 명 모델이 펼치는 패션쇼 무대는 봄철을 맞아 활짝 핀 진달래마냥 관중들의 눈을 황홀하게 하며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궁중모델 패션쇼’ 공연팀은 할빈시 김금화성형병원 김금화 원장이 민족의 복식 문화를 널리 알리고저 지난해 8 월에 설립한 것이다. 할빈시에 거주하는 조선족 여성들 위주로 구성



▲ 화려한 궁중모델 패션쇼 무대

된 공연팀은 중국무용가협회 회원이며 할빈시무용가협회 부주석을 맡고 있는 무용가 강월화를 감독으로 모시고 짬짜미 여유시간을 리용하여 훈련을 해왔다. 갓 설립되어 지난해 9 월

에는 길림성 외국인 추석맞이 친목행사, 10 월에는 중국 (장춘) 한국주간 행사 개막식 공연 등에서 선을 보이며 대환영을 받았다. 공연팀은 이번에는 성급 방송무대

에 진출하면서 우리 민족 복식의 우아함과 조선족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또 한번 주류사회에 널리 알리게 되었다.

/ 흑룡강신문

료녕성 조선족 단체들 올해 힘찬 새 도약 약속

- 료녕성조선족련의회 ‘민족단결진보’ 련환회 개최

료녕성조선족련의회에서 주최하고 료녕성조선족련의회 예술가분회에서 주관, 료녕성 각 시 조선족 련의회, 련합회, 경제문화교류협회, 기업가협회에서 협력한 ‘민족단결진보’ 2025 년 신년련환회가 일전 심양에서 있었다.

료녕성조선족련의회 관계자들과 전 성 13 개 시 조선족 각계 대표 300 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아름다운 동행으로 찬란한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뜻을 같이했다.

련환회에서 료녕성조선족련의회 리홍광 회장이 축사를 통해 최근년간의 련의회 사업을 총화했다.

련의회는 우선 당건설 사업을 강화하고 중화민족공동체의를식을 구축하는 데 힘써왔다. ‘영원히 당을 따라가자’ 간담회, 20 차 당대회 보고 학습 독서회를 조직했으며 ‘조선족당원 풍채’ 홍보 보도 활동을 전개하고 동북항일의용군기념관 참관 활동, 《료녕성조선족항일영웅전》, 《료녕성조



▲ ‘민족단결진보’ 주제의 련환회 무대

선족항미원조영웅인물사적》 도서 편찬을 조직했으며 설송의약회사와 공동으로 주제당일 활동을 진행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진행했다.

다양한 민족문화 전승 활동을 전개하여 협회의 영향력을 부단히 확대했다. 새 중국 창건 70 주년 경축

테마로 ‘따사로운 해살 아래의 조선족—료녕성 조선족 70 년 사진 순회전’, 성내 우수 조선족 교사 위문 활동을 진행했으며 문화분회와 공동으로 필회, 세미나 등 행사를 조직했다. 산하 분회들도 각자 령역에서 활발한 활약을 보이며 조선족 문화

를 알리는 데 앞장섰다.

대형 활동을 통해 협회의 응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각 시 협회, 성 직속 분회는 료녕성 조선족 배구 초청경기, 료녕성 조선족 바드민턴 초청경기, 료녕성 조선족 ‘단결’컵 축구대회, 료녕성 조선족 탁구 초청경기,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 주년 경축 문예공연 등 다양한 대형 활동을 주최하여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

조화로운 분위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으며 협회 응집력을 부단히 강화했다. 지금까지 전 성 14 개 도시중 13 개 도시에 조선족련의회가 설립되었고 조선족 인구가 비교적 적은 조양시에도 곧 련의회가 설립될 예정이다.

신년련환회는 ‘민족단결진보’를 주제로 료녕성내 13 개 시에서 준비해온 문예공연을 펼쳐보이며 단합을 도모하고 새해의 힘찬 도약을 기원했다.

/ 료녕신문

음력설 맞아 더욱 빛난 광둥 조산 ‘잉거춤’



최근 2 년, 광둥 조산 (潮汕) 지역의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인 ‘잉거춤’(英歌舞)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많은 누리꾼들은 잉거춤 공연을 ‘꼭 봐야 하는 전통 예술의 향연’이라고 치켜세우고 있다. 음력설 련휴 기간 TV 프로그

램 및 해외 공연에 등장한 잉거춤은 음력설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잉거춤은 광둥 조산지역의 전통 민속춤으로 연극, 무용, 무술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며 그 기세가 대단하기를 이를 데 없어 ‘중화전무’(中华战舞)라 불리기도 한다.

고대 우리 나라에서 제사 때 추는 춤에서 유래한 잉거춤은 당나라와 송나라 시기에 이미 형태가 갖춰졌고 명나라 시기에 이르러 크게 성행했으며 전승 과정에서 다양한 류파가 형성되기도 했다. 잉거춤은 지난 2006 년에 제 1 기 국가급 무형문화

유산에 등재되었다.

올해 음력설 련휴 기간에 광둥 산두의 잉거춤 공연팀은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오문 등 국가와 지역의 초청을 받아 전세계에 중국 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줬다.

/ 중국넷



2 월 2 일, 광둥 산두 거리에서 ‘잉거춤’을 선보이는 공연팀.



란주 지방 특색의 무형문화유산 ‘서고군나무’

음력설 기간 2025 년 감숙성 란주시 음력설 문화축제가 란주 금성관에서 펼쳐지며 란주 태평고, 서고군나무(西固军鼓舞), 룡·사자춤, 나무다리춤, 진극(秦腔戏) 등 100 여개 무형문화유산 공연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설맛을 선사했다. 사진은 서고군나무 공연 현장.

/ 인민넷

얼음도시에 피어난 문학예술의 향연

흑룡강성조선족작가협회 회원대회 및 제 1 회 동주·할빈문학상 시상식 할빈시



▲ 흑룡강성 문학인들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

흑룡강성조선족작가협회에서 주최한 흑룡강성조선족작가협회 회원대회 및 제 1 회 동주·할빈문학상 시상식이 일전 할빈시에서 개최되었다. 행사에는 총회와 각 지역 분회 회원 40 여명이 참가하여 민족문학 창작에 대한 높은 참여도를 보여주었다.

흑룡강성조선족작가협회는 1980 년대초에 설립된 흑룡강성조선족문학창작소조를 전신으로 1995 년에 흑룡강성조선족창작위원회로 정식 설립을 고했으며 지금까지 연변작가협회 할빈지역창작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해 오면서 조선족 작가 대오의 형성과 발전에 커다란 추진 작용을 하였다. 협회는 산하에 념안, 해림, 목단강, 상지, 밀산, 계동 등 8 개 분회를 설립하고 활발한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협회 리홍규 회장은 13 년간 회장직을 련임해 오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모로 후원자금을 모아 해마다 환관씩 《할빈문학》 회원 종합 작

품집을 출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합 11 권을 출판했다.

행사에서는 흑룡강성조선족작가협회 제 7 기 리사회 및 회장단 명단 발표에 이어 리홍규 회장으로부터 제 6 기 리사회 및 회장단 사업보고가 있었다. 또 작가협회 부회장 채복숙, 리명화, 《장백산》잡지사 편집 리혜의 작품 창작 경협답 소개 및 각 분회 대표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제 2 부 행사로 ‘2025 할빈 문학의 밤’ 신년회 및 제 1 회 ‘동주·할빈문학상’ 시상식이 만찬과 함께 펼쳐졌다. 문학상에는 안예화의 수필 <이웃 사촌> 이 신인상으로; 송련희의 수필 <떠나는 가을 속에서 그이를 그리다>, 리춘렬의 서정시 <보름달(외 1 수)>, 신금화의 서정시 <뜨락(외 2 수)>, 김봉금의 서정시 <곰강(외 2 수)> 이 최우수상으로; 피규련의 수필 <시련도 축복이다>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 흑룡강신문

청도조선족작가협회 지난 한해 대풍작

연해지역에서 민족문학의 맥락을 이어가고 있는 청도조선족작가협회는 지난 한해도 대풍작을 거두었다.

청도조선족작가협회는 연변작가협회 청도창작위원회로서 현재 연변작가협회 회원이 40 여명이다. 회원 작품집인 36 만자 편폭의 《개별의 하얀 진주》를 여덟권 공식 출간했는가 하면 올해까지 12 년간 대원학교를 찾아 백일장을 펼쳤으며 청도삼구식품유한회사의 후원으로 ‘민들레 문학상’을 설치하고 회원들의 적극성을 불러일으켰다.

2024 년 한해만 해도 청도 조선족 작가들은 《연변문학》, 《장백산》, 《연변일보》 등 간행물에 100 여편의 작품을 발표했으며 여러 간행물들에서 주동적으로 청도특집을 제의하고 실어주는 아름다운 풍경까지 연출되었다.

장학규의 단편소설집 《앵두꽃 떨어질 때》와 리병군의 학술서지 《리문렬 소설에 나타난 동양적 복고주의》가 연변작가협회 계획출판도서에 선정

되어 출간되었고 리홍숙의 장편소설 《낮달》과 리병군의 시집 《계절을 잊은 당신에게》도 연변작가협회 계획출판도서에 선정되어 올해 출간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류선희의 단편소설 <더 세계 안아줘>가 제 4 회 청년문학상 금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회원이 여러 가지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한춘옥은 수필집 《고독의 색깔》을 출간했다. 행사는 문학적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사랑송으로 이채를 돋구었으며 장학규의 단편소설집 《앵두꽃 떨어질 때》의 출간식, 회원 맞이 이벤트, 특별보고상 수여식 등으로 이어졌다.

청도조선족작가협회 리문혁 회장은 “여러 회원들의 식을 줄 모르는 문학 사랑에 힘입어 협회가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면서 “새로운 한해에는 보다 차원 높은 명품 창작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바랐다.

/ 연변일보